

첫 자녀 출산 후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 자녀가치, 양육지식, 자녀미래기대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Parenting Stress Changes in Both of Continuous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After the Birth of Their First Child :
A Focus on the Effects of the Values, Knowledge and
Expectations about Their Children*

송영주(Young Joo Song)¹⁾

이미란(Mi Ran Lee)²⁾

천희영(Hui Young Chun)³⁾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arenting stress changes in both continuous working and continuous non-working mothers after the birth of their first child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cognitive variables about child-rearing, using the 3rd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parenting stress of the non-working mothers was higher than the stress experienced by the working mothers. The increase in stress was only found both groups between the second year and the third year of childbirth. The total explanatory power of the knowledge, values and expectations regarding their children saw stress increase for the working mothers, but saw it decrease for the non-working mothers. Finally, the

* 본 논문은 2014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¹⁾ 계명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²⁾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³⁾ 고신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i Ran Le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ongyang University, 145 dongyangdae-ro, Punggi-eup, Yeongju-si, Gyeongsangbuk-do 750-711, Korea
E-mail : mrlee@dyu.ac.kr

© Copyright 2014,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emotional value surrounding parenthood was the most powerful variable for both groups, with the exception of the non-working mothers' stress, as experienced in the first year.

Keywords :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취업모(working mothers), 전업모(non-working mothers),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I. 서론

결혼을 한 성인은 첫 자녀의 출산으로 새롭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녀양육의 경험이 없는 이들은 관련 지식이나 정보도 부족하여 자녀양육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부모로서의 책임이나 부담과 함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녀양육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핵가족화 및 가족유형의 다양화 등의 현대사회 현상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저출산 사회를 이끄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모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자신의 상황이나 자녀양육 과정이 기대와 부합되지 않을 때, 이와 관련된 경험이 스트레스로 평가되어 부모자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요소이다(Abidin, 1990, 1992).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의 심리적 안녕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태도나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Ahn, 2000; Lim, Choi, & Lee, 2012; Min & Moon, 2013), 결국 자녀의 발달적 결함과 부모자녀 관계의 질 손상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양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양육스트레스의 수준과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Choi, Yeon, Kwon, & Hong, 2013; Crnic & Booth, 1991; Eom, 2011; Kim, Moon, Kim, & Ahn, 2013; Kwon, 2011; M. Lee, 2013; Moon, 2004; Muslow, Caldera, Pusley, & Reifman, 2002; Ok & Chun, 2012; Sohn, 2012; Suh & Kim, 2012).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변인모델(multivariate model)에 따라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자녀의 특성, 가족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다루어져 왔는데(Crnic & Acevedo, 1995; Crnic & Low, 2002), 그 중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부모자녀 관계 연구 분야에서는 부모역할이나 자녀양육 행동의 근원을 규명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지향하는 신념이나 사고와 같은 인지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Goodnow, 1988; Miller, 1988). 이에 따라 부모가 자신의 양육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자녀에 대해 어떤 기대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등과 같은 양육의 인지적 요인을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Ahn, 2000; Choe, 2002; Choe & Chung, 2000; Kim, 2009; Kim, 2011, 2013; Kim & Song, 2007; Lee & Park,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관련 요인으로서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중 자녀양육과 관련된 인지적 요인을 다루고자 하였다.

먼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되는 어머니의 양육관련 인지적 요소로서 양육지식을 고려할 수 있다. 양육지식이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지식과 정보(Yoon & Cho, 2004)로서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양육지식은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게 하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내적 기준인 발달시간표를 구성하게 한다(MacPhee, 1984). 올바른 양육지식은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기술을 사용하도록 하며 발달에 적절한 환경자극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자녀의 발달을 촉진케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Min & Moon, 2013).

따라서 어머니는 양육지식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며 보다 효과적인 자녀 양육을 수행한다고 한다(Choi et al., 2013; Kim & Song, 2007; Miller, 1988; Min & Moon, 2013)고 볼 수 있다. 반면, 양육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당황하게 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없게 되어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녀도 스트레스를 갖게 할 수 있다(Hunt & Paraskevopoulos, 1980). 이와 달리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와 상관이 없다는 보고(Kim et al., 2013; Kwon, 2011; Yang & Kim, 2012)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어머니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양육에 대한 생각 또는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나 기대 등은 어머니가 끼여 부모역할을 선택하여 수행하는 이유나 동기를 반영하는 개인의 믿음으로서,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반응 또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oi et al., 2013; Reece & Harkless, 1998). 먼저, 자녀가치는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등의 부모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 또는 부모됨의 태도로 자녀에 대해 어떠한 가치를 갖는가는 부모역할에 대한 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 자녀가치는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구분되는데(Lee, 2003), 자녀에 대해 정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자녀관을 갖고 있는 것이며, 도구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노후의 경제적 도움을 바라는 등의 자녀관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Lim et al., 2012).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서적 가치 혹은 도구적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부모역할 인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녀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느끼는 부담이나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는지 조사한 연구(Choi et al., 2013; Kwon, 2011; Lim et al., 2012; Ok & Chun, 2012; Sohn, 2012)는 전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녀가치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모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관계를 보여 자녀에게 가치를 많이 부여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낀다는 주장(Lim et al., 2012)이 있는 반면,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만이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Sohn, 2012). 취업모와 전업모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연구(Kwon,

2011)에 의하면 취업모는 자녀에게 정서적 가치를 많이 부여할수록, 전업모는 자녀에 대해 도구적 가치를 높게 부여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느낀다고 하였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또 다른 인지적 변인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다. 기대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어떤 현상이나 사건 등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기다리는 행동의 준비상태이며(Nam, 2005), 이러한 기대는 자신의 사고와 행동, 타인의 행동에 대한 지각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 내에서의 행동과 반응을 이끈다(Collins, 1992). 그러므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나 구체적 부모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으며 자녀의 발달과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Kim, 2011, 2013; Nam, 2005). 자녀의 발달에 대한 기대를 조사한 연구(Kim, 2011, 2013)에 의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정적 상관성이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높은 기대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자신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인식하며 부모역할 지능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전체적인 지각을 다루기 위해 자녀에 대한 기대로서 자녀 발달에 대한 기대 대신 자녀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였다. 자녀에 대한 미래기대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갖게 되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주관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바람을 의미한다(Cho, 2013). 자녀미래기대를 조사한 Cho(2013)는 유아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미래기대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자녀에 대한 미래기대가 높을수록 부모역할 인식수준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부모역할 인식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Cho, 2013; Kim, 2011)에 기초해 볼 때, 첫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미래에 대해 기대가 높으면 이러한 높은 기대가 자녀행동에 대한 지각과 자녀양육 상황에 대한 정서반응에도 영향을 주어서 자신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수용하며 자녀양육 상황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자녀양육 관련 인지적 요인을 양육지식, 자녀가치 그리고 자녀미래기대 등의 변인을 포함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인들이 자녀가 영아기를 거치는 동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해보고자 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 및 주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취업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를 다룬 연구결과는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취업모가 전업모보다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연구(Bek, 2007; Forgays, Ottaway, Guarino, & D'Alessio, 2001)에 의하면 취업모는 자녀양육 등 가정에서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중역할의 부담을 가지며 자녀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죄책감을 느껴서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한다. 한편, 전업모가 취업모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Ahm, 2000; Eom, 2011; Kwon, 2011; Lim et al., 2012; Sohn, 2012; Yoon, Hwang, & Cho, 2009)는 전업모가 비교적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가사 일을 하면서 육체적 피곤을 느끼는 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적다고 생각하고 친구나 친지들과 사회

적으로 고립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Kim & Song, 2007; Kim et al., 2013).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연구결과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머니의 취업여부 그 자체이기 보다 취업모와 전업모의 다른 양육 환경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기여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것(Kwon, 2011; Lim et al., 2012; Moon, 2004; Sohn, 2012)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달라지고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 특정의 한 시점에서 양육스트레스 수준과 영향요인을 밝히고 있으며, 시간 경과 또는 자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종단적으로 조사한 연구(Choi, 2013; Crinic & Booth, 1991; Muslow et al., 2002)는 소수만 보고되어 있다. 이 연구들은 자녀가 생후 1개월 때의 양육스트레스가 생후 6개월 때보다 높게 나타난 것(Muslow et al., 2002) 이외에는 자녀가 만 3세 될 때까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자녀에 대한 가치와 기대,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양육스트레스를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SKC(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에 의한 첫 자녀 출산 후 3년 동안의 종단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의 변화를 알아보고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중 양육관련 인지적 요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양육의 중요한 요인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연구대상을 취업모와 전업모로 구분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양상과 어머니의 자녀양육 관련 인지적 요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일정 시점에서의 취업 상태가 아니라, 첫 자녀 출산 후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취업 혹은 전업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취업 유지 어머니와 전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 변화를 시간차원에 따라 확인하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조사 당시의 취업상태보다는 일정 기간 취업 혹은 전업 상태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대상만을 제한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취업여부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첫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와 자녀양육 관련 인지적 요인과의 관계 변화를 규명하여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를 위한 차별적이며 효율적인 방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첫 자녀 출산 후 3년간 취업유지 어머니와 전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첫 자녀 출산 후 3년간 취업유지 어머니와 전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지식, 자녀가치와 자녀미래기대에 의해 어떻게 설명되는가?

먼저 선정하였다. 첫 자녀의 출산은 부모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부모역할 관련 변인에서 두 번째 이상의 자녀 출산 어머니와 다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 년도에 첫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들만을 대상으로 양육관련 변인을 조사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KICCE(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1)의 PSKC에 의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3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1. 연구대상

2008년에 수집된 1차 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첫 자녀 출산으로 응답한 어머니 984명을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3년간 취업을 유지하거나 전업을 유지한 어머니들을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3년간 연속하여 취업상태로 응답한 대상을 ‘취업유지’ 집단으로, 3년간 연속하여 미취업이나 미학업으로 응답한 대상을 ‘전업유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상은 ‘취업유지’ 171명(28.2%), ‘전업유지’ 435명(71.8%)으로 총 606명이 선정되었다. 연구대상의 기본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 제시한 자녀의 특성은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첫 번째 자녀에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Mother		Baby		
	Age: Year <i>M(SD)</i>	Education <i>n(%)</i>	Age: Month <i>M(SD)</i>	Sex <i>n(%)</i>	
Continuous working (<i>n</i> = 171)	29.99 (3.07)	Under high school	27(16.9%)	Girl	87(50.9%)
		College	47(29.4%)		
		University	69(43.1%)	Boy	84(49.1%)
		Graduate school	17(10.6%)		
Continuous non-working (<i>n</i> = 435)	30.17 (3.90)	Under high school	129(31.9%)	Girl	208(52.2%)
		College	110(27.2%)		
		University	150(37.0%)	Boy	227(47.8%)
		Graduate school	16(4.0%)		
Total (<i>n</i> = 606)	30.12 (3.68)	Under high school	156(27.6%)	Girl	295(48.7%)
		College	157(27.8%)		
		University	219(38.8%)	Boy	311(51.3%)
		Graduate school	33(5.9%)		

해당하는 내용이다.

2. 연구도구

1)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Kim 등(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일부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원척도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재는 11개(1차, 2차 년도의 경우 10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 매우 그렇다 = 5)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검사 도구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를 낳은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양육스트레스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 각각 .83, .84, .87로 나타났다. 3차 년도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에는 1차, 2차 년도에 영아를 둔 어머니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된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본 검사 도구는 년차별로 구성 문항수가 달라 분석에서는 5점 만점의 문항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양육지식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양육지식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KIDI(The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MacPhee, 2002) 목록 중 ‘발달원리’ 영역에 해당하는 13개 문항을 이

용하였다. 각 문항별로 정답인 경우 1점, 틀리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0점을 부과하여 합한 점수를 양육지식의 총점으로 사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아기들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단어들만 이해한다’, ‘아기의 성격 또는 기질은 생후 6개월이면 결정되고, 그 이후에는 잘 변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검사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정확한 양육지식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각 년차별 내적합치도 계수는 각각 .56, .59, .55로 나타났다.

3) 자녀가치

자녀가치는 부모됨의 태도와 동기에 관한 내용을 묻는 것이다.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05)에서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사용된 척도 중 자녀가치와 관련된 일곱 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와 같이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묻는 3개의 문항과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등을 포함하는 도구적 가치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 매우 그렇다 = 5)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갖거나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년차별로 수집된 자녀가치 검사도구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72, .75, .76이었다. 자료의 분석에서는 하위 가치영역별 비교와 다른 척도와의 비교를 위해 문항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4) 자녀미래기대

본 항목은 일본의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2007)에서 수행한 자녀교육 특성 국제 비교 연구에서 사용한 여섯 문항의 검

사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돈을 잘 번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 등의 문항에 대해 자녀에게 기대하는 정도에 따라 4점 척도(매우 원한다 = 1, 전혀 개의치 않는다 = 4)로 응답하는 방식이며, 본 연구의 다른 검사도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척도 점수를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차 년도 자료는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코딩되어 있어 1차와 2차 년도 자료와 달리 별도의 역코딩을 거치지 않았으며, 본 도구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원 도구의 경우 각 항목별로 응답자가 원하는 정도를 해석하는 것으로 총점을 산출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점에서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후 문항평균점수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검사 도구의 년차별 내적합치도 계수는 각각 .67, .69, .68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는 평정척도 형식으로 구성 문항수가 달라 해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변인별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취업과 전업 상태 유지여

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년차별 양육스트레스를 피험자내 변인으로 하는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지식, 자녀가치, 자녀미래기대 간 상관계수를 집단별로 나누어 산출하고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양육관련 변인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VIF* 계수와 공차한계 등을 산출하여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으며, 취업유지 집단과 전업유지 집단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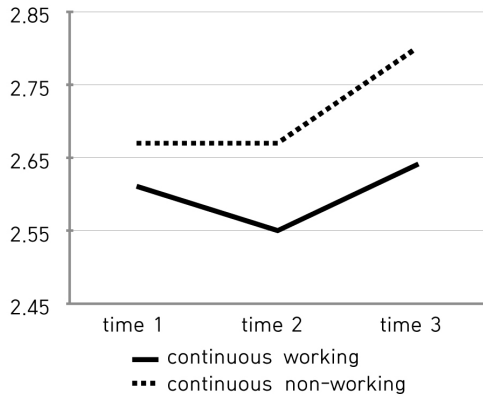
Ⅲ. 결과분석

1. 취업유지 어머니와 전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먼저, 시간차원에 따른 취업유지 어머니와 전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2에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두 집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집단별로 비교하고 시간차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parenting stress

Time	N	Total		Continuous working		Continuous non-working	
		M	SD	M	SD	M	SD
1st	543	2.65	.62	2.61	.61	2.67	.62
2nd	602	2.64	.43	2.55	.65	2.67	.64
3rd	593	2.76	.64	2.64	.59	2.80	.66
Total		2.68	.54	2.61	.53	2.71	.54



〈Figure 1〉 Parenting stress by time and group

분석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유지 어머니($M = 2.71, SD = .54$)는 취업유지 어머니($M = 2.61, SD = .53$)보다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여주었다. 즉 첫 자녀 출산 후 계속하여 전업 상태를 유지한 어머니는 계속 취업 상태를 유지한 어머니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아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Figure 1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서 전업유지 어머니들이 취업유지 어머니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양육스트레스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음의 Table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시간차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차원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점수를 사후 분석한 결과, 1차 년도와 2차 년도의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차이가 없으나($t = .11, p = .91$) 3차 년도의 양육스트레스는 1차 년도($t = 4.37, p = .00$)나 2차 년도($t = 5.53, p = .00$)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이들 자녀가 만 2세를 지나면서 의미 있게 높아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간차원과 집단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첫 자녀 출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양육스트레스 증가는 전업유지 어머니와 취업유지 어머니들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2. 취업유지 어머니와 전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설명 요인

분석에 앞서 먼저, 본 연구 대상인 취업유지 어머니와 전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지식, 자녀가치, 자녀미래기대 등 양육관련 변인들의 점수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 통계자료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3〉 ANOVA on parenting stress by time and group

		SS	df	MS	F
	Time	2.83	2	1.41	8.70***
Within-subjects	Time × Group	.54	2	.27	1.66
	Error	171.42	1054	.16	
Between-subjects	Group	3.68	1	3.68	4.21*
	Error	460.54	527	.87	

* $p < .05$. *** $p < .001$.

〈Table 4〉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s	Time	N	Total		Continuous working		Continuous non-working		
			M	SD	M	SD	M	SD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1st	540	12.49	2.75	12.27	2.54	12.57	2.82	
	2nd	601	12.31	2.73	12.18	2.59	12.36	2.78	
	3rd	590	12.11	2.54	11.98	2.28	12.12	2.64	
Emotional value	1st	546	4.45	.54	4.49	.54	4.44	.54	
	2nd	601	4.33	.58	4.30	.57	4.33	.58	
	3rd	594	4.30	.60	4.31	.60	4.29	.60	
Values of their children	Instrumental value	1st	546	2.96	.80	2.94	.76	2.97	.82
		2nd	603	2.90	.78	2.83	.75	2.92	.80
		3rd	596	2.86	.76	2.75	.73	2.90	.76
Emotional value + Instrumental value	1st	546	3.60	.58	3.61	.59	3.60	.58	
	2nd	601	3.51	.60	3.46	.58	3.53	.60	
	3rd	593	3.48	.59	3.42	.59	3.50	.59	
Expectations for a child's future	1st	545	3.05	.40	3.08	.36	3.04	.42	
	2nd	602	3.08	.39	3.14	.37	3.06	.40	
	3rd	596	3.07	.39	3.09	.39	3.07	.39	

Table 4를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양육지식 등의 변인은 모두 연차별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었으나, 자녀미래기대는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두 집단별로 양육스트레스 점수와 각 양육관련 인지 변인들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취업유지 어머니와 전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대부분의 시간차원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부여 점수와 의미 있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첫 자녀 출산 후 3년간 자녀에 대해 정서적, 도구적 가치를 높게 부여할수록 두 집단 모두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육지식 및 자녀의 미래기대와 양육스트레스 간 상관관계는 두 집단에서 약간 다르게 나타났으며, 시간차원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가 취업유지 어머니와 전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 양육에 관한 지식이나 자녀의 미래기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는 시간차원이나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유지 집단과 전업유지 집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의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설명변인들의 양육스트레스에

<Table 5> Correlational coefficients of parenting stress and independent variables

Time	(1) Parenting stress			(2)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3) Emotional value			(4) Instrumental value			(5) Expectations for a child's future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1	.63*	.52*	.07	.07	.10*	-.26*	-.22*	-.14*	-.25*	-.12*	-.09	.05	.05	.01	
	2	.60*		.61*	.06	.04	.13*	-.24*	-.28*	-.14*	-.18*	-.19*	-.12*	.05	.02	.05
	3	.51*	.72*		.04	.06	.07	-.17*	-.19*	-.22*	-.16*	-.14*	-.15*	.04	.06	.10
(2)	1	.01	.02	.07		.32*	.42*	-.05	-.11	-.11	-.20*	-.05	-.05	-.09	.03	.05
	2	-.07	.06	.03	.35*		.45*	.10	.01	-.19*	-.06	-.07	-.07	-.07	-.17*	-.06
	3	.08	.16	.11	.21*	.48*		-.03	-.13	-.20*	-.15	-.14	-.17*	-.12*	-.11*	-.13*
(3)	1	-.25*	-.17*	-.28*	.06	-.04	-.13*		.51*	.44*	.33*	.35*	.23*	.12*	.13*	.16*
	2	-.28*	-.36*	-.37*	.07	.03	-.09	.54*		.53*	.20*	.41*	.26*	.09	.16*	.13*
	3	-.29*	-.35*	-.43*	.03	.02	.09	.45*	.53*		.18*	.27*	.41*	-.02	.00	.12
(4)	1	-.17*	-.11	-.24*	-.10*	-.09	-.15*	.51*	.40*	.34*		.61*	.57*	.19*	.16*	.13*
	2	-.15	-.26*	-.30*	-.01	-.06	-.13*	.40*	.47*	.42*	.64*		.62*	.14*	.23*	.14*
	3	-.27*	-.23*	-.30*	.02	.04	-.08	.34*	.35*	.47*	.54*	.62*		.11*	.13*	.20*
(5)	1	.01	-.02	-.04	.13	.21*	.24*	.09	.07	.05	.34*	.21*	.22*		.48*	.44*
	2	-.06	-.08	.03	.04	.12	.26*	-.01	.06	.07	.23*	.28*	.20*	.52*		.54*
	3	.02	-.02	.04	.02	.12	.14	.00	.07	.06	.10	.13	.13	.37*	.33*	

Note. Correlations above the diagonal are for the continuous non-working mothers, correlations below the diagonal are for the continuous working m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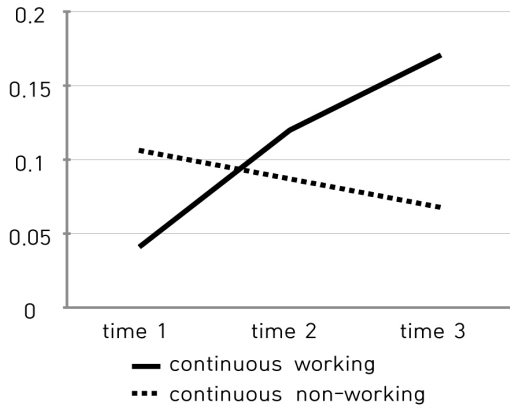
* $p < .05$.

대한 전체 설명력을 먼저 확인하기 위하여 동시 입력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설명계수(R^2) 값을 비교하였다. 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공차한계 값은 .63~.98의 범위로 모두 0.1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VIF* 계수는 1.02~1.57로 모두 4 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차항의 자기 상관인 *Durbin-Watson* 계수들 역시 1.93~2.12의 범위에 해당하여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동시입력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 취업유

지 집단은 1차 년도에 .04에서 2차 년도에는 .12, 3차 년도에는 .17로 양육지식, 자녀가치, 자녀미래기대 등 양육관련 인지적 요인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 전업유지 집단은 년차별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의 설명력이 각각 .11, .09, .07로 그 값이 점차 줄어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각 시간차원별로 취업유지 집단과 전업유지 집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투입(stepwise) 방식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2〉 Adjusted R^2 (input) predicting parenting stress from the independent variables

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공차한계 값은 모두 .87~1.00의 범위에 해당하고 VIF 계수는 모두 1.00~1.02 범위에 위치하여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Durbin-Watson 계수들 역시 1.99~2.09의 범위에 해당하여 오차항간 상관에도 문

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Table 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취업유지 집단과 전업유지 집단은 시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변인이 일부 다르게 나타났다. 취업유지 집단은 년차별로 동일하게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만이 유일한 양육스트레스 설명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변인들은 어떤 시간 차원에서든 추가적 설명력을 갖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유지 집단의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정서적 가치를 높게 부여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적고 반대로 정서적 가치를 낮게 부여할수록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이며, 이러한 설명력은 3년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업유지 집단의 어머니도 취업유지 집단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독립적 혹은 추가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 부여에 따라 의미 있게 결정되며, 이러한 관계

〈Table 6〉 Summary of stepwise regressions predicting parenting stress from the independent variables

Time	Continuous working					Continuous non-working				
	Step	β	S.E.	R^2	$adj.R^2$	Step	β	S.E.	R^2	$adj.R^2$
1	(1) Emotional value	-.25	.09	.06	.06	(1) Instrumental value	-.26	.04	.07	.07
						(2) Instrumental value	-.20	.04	.10	.09
						(2) Emotional value	-.19	.06		
						(3) Instrumental value	-.22	.04		
						(3) Emotional value	-.19	.06	.11	.10
						(3) Future expectation	.11	.07		
2	(1) Emotional value	-.37	.08	.13	.12	(1) Emotional value	-.28	.05	.08	.08
	(1) Emotional value	-.42	.07	.17	.17	(1) Emotional value	-.22	.05	.05	.04
3						(2) Emotional value	-.23	.05	.07	.06
						(2) Future expectation	.14	.08		

는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상관없이 유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전업유지 집단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 역시 중요한 양육스트레스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 자녀를 출산한 1차년도에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보다 도구적 가치가 먼저 유의한 변인으로 채택되었다. 즉 부모기로 전환한 첫 해에 전업유지 어머니들은 ‘결혼을 하면 대를 잇기 위해 자녀가 있어야 하거나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을 것’ 등의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가 양육스트레스를 가장 잘 설명함으로써, 정서적 가치가 유일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난 취업유지 어머니들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와 달리 전업모는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를 적게 부여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말하는 것으로 첫 자녀 출산을 통한 부모기로의 전환기에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두 집단에서 서로 다른 요인에 따라 더 많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전업유지 어머니들은 첫 자녀 출산 직후인 1차 년도와 영아기를 벗어나는 3차 년도에 정서적 가치 이외에도 자녀에 대한 미래기대가 유의한 추가적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전업유지 어머니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돈을 잘 벌거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기를 바라는 등의 미래기대가 높은 것 역시 양육스트레스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KICCE(2011)의 PSKC 데이터를 활용하여 첫 자녀 출산 후 3년간 취업유지 어

니와 전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를 알아보고,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양육지식과 자녀가치, 자녀미래기대 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첫 자녀의 출산 후 3년간 취업유지 어머니와 전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3차 년도, 즉 영아기가 넘어서면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 자녀가 만 2세를 지나면서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영아기 자녀보다 유아기 자녀 양육시기에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Lee, 2003; Yu & Lee, 1998)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영아기는 발달특성상 성장의 속도가 빠르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의존하는 시기이며 어머니는 부모기로 전환한 후 새로운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시기이다(Cho et al., 2014).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자녀가 활동성, 자율성이 증가하는 유아기로 전환함에 따라 자녀의 새로운 발달과업과 교육 부담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다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었다(Yu & Lee, 1998). 또 다른 이유로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3차 년도에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함에 따라 양육부담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후속 출산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표집하였으며, 분석에서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는 집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전업유지 어머니가 취업유지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 유무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전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보고(Ahn, 2000; Eom, 2011; Kwon, 2011; Lim et al., 2012; Sohn, 2012; Yoon et al., 2009)와 일관된 것이었다. 취업모는 전업모에 비해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가 경감되고(Östberg & Hagekull, 2000) 양육과제에 대한 부담을 덜 지각하기(Melson, Ladd, & Hsu, 1993)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양육 지원을 받는 어머니는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Kim et al., 2013). 취업유지 어머니에 비해 대리양육을 덜 이용하고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유의하게 많은 전업유지 어머니(Kim, 2012)는 부모역할의 부담과 디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집단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 차이는 취업 자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 가용성 혹은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인지적, 주관적 해석과 만족도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시간차원과 집단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보이지 않아서 두 집단의 양육스트레스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첫 자녀 출산을 통해 부모기로 전환한 어머니 중 3년간 계속 전업 혹은 취업 상태를 유지한 경우만을 선정함으로써, 전업 혹은 취업의 누적효과에 따라 두 집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차이가 변화될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두 집단은 시간차원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차이가 변하지 않아서, 전업유지 어머니는 취업유지 어머니에 비해 부모기로의 전환 첫 해부터 이미 의미 있게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이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를 연속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업모가 양육

과 가사일에 전념하지만 보상이 적고 사회적 고립감으로 취업모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Kwon(2011), Lim 등(2012), Yoon 등(2009)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것이었다.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Lim et al., 2012; Min & Moon, 2013)을 고려할 때 전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한국아동패널의 추후 수집자료에서도 유의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유지 어머니와 전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양육 지식, 자녀가치, 자녀의 미래기대 변인 등의 양육관련 인지적 요인의 설명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3년간 관련변인 전체에 의한 양육스트레스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취업유지 어머니 집단에서는 설명력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전업유지 어머니 집단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어머니에게 첫 자녀는 특별한 의미와 기대를 가지게 하여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Kim, Cho, & Jung, 2007), 어린 연령에서부터 교육에 대한 경제적 투자를 더 많이 하며(Watson & Lindgen, 1973)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맥락 특성 상 자녀양육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H. Lee, 2013). 따라서 첫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지식, 자녀가치, 자녀 미래기대 등 양육 관련 인지적 요인은 자녀의 연령 증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를 점점 더 많이 설명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수용 가능한 것이었다.

반면 전업유지 어머니의 경우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룬 양육관련 인지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었다. 취업유지 어머니에 비해 양육을 전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전업유지 어머니는 자녀를 더 잘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핵가족의 약화된 양육지원 체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의 누적,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소외감(Kim & Seo, 2012) 등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아져 어머니로서의 양육효능감과 자신의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Gross, Conrad, Fogg, & Wothke, 1994; Kim et al., 2007). 이로써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불안(Kim & Seo, 2012; Lee, 2012), 우울감(Hashimi, Khurshid, & Hassan, 2007; Kim, 2012) 등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또한 전업유지 어머니의 경우 양육에 대한 남편의 협조가 취업모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도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Kim(2012)에 의하면 전업모의 남편은 취업모의 남편에 비해 자녀양육에 대한 협조 정도가 낮고 주말에 자녀와 상호작용 하는 시간 역시 적었다. 이상과 같은 전업모와 취업모 간의 양육관련 조건에서의 차이에 관한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전업유지 어머니에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관련 인지적 요인의 총설명력이 연차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Choi et al., 2013; Kim, 2012) 또는 아버지의 양육참여(Kwon, 2011; Lim et al., 2012; Moon, 2004; Sohn, 2012)와 같은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의 증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확인한 결과, 전업유지 어머니들에서 부모기로 전환한 첫 해에 자녀의 도구적 가치가 제1 설명변인으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취업유지 어머니와 전업유지 어머니 집단 모두 자녀의 정서적 가치가 양육스트레스를 우선적으로 혹은 추가적으로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출산을 통해 부모가 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고 부부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높게 부여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행복감과 기쁨은 양육의 부담과 어려움을 줄여주며(Abidin, 1992) 양육스트레스의 심각성 정도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Choi et al., 2013). 따라서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는 어머니의 취업유지, 전업유지와는 관계없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교육적, 실제적 실행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었다.

자녀가치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후속출산 경향의 관계 측면에서도 논의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높을수록 후속출산 의도나 실제 후속출산이 높다는 연구결과(Chung & Chin, 2008; Chung, Hong, & Park, 2013)에 비추어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 가치부여가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후속출산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뒷받침해 주었다. 아울러 전업유지 어머니들의 경우 1차 년도에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가 후속출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Chung 등(2013)의 보고와 함께 도구적 가치 역시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부모역할의 부담을 줄여 후속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었다.

한편 첫 자녀를 출산한 1차 년도의 경우, 취업유지 어머니의 경우는 전업유지 어머니와 달리 양육스트레스 설명에서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부모기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첫 해의 양육스트레스

가 취업유지 어머니와 전업유지 어머니 두 집단 간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유지 어머니에게는 자녀를 갖는 것이 사회에 기여하며 자신의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도구적인 가치(Lim et al., 2012)가 전업유지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전업유지 어머니에서는 부모역할에의 적응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 부모기로의 전환 첫 해에 도구적 가치가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 후 육아에 전념하게 되는 전업유지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의 보람보다는 부담이 크고(Ahn, 2000; Sohn, 2012), 맞벌이가정에 비해 가질 수 있는 경제적 불안으로 노후 대비 경제적 도구로 자녀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었다. 취업모가 자녀에게 정서적 가치를 많이 부여할수록, 전업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가치를 높게 부여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느낀다는 Kwon(2011)의 보고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이와 함께 취업유지 어머니와 달리, 전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1차 년도와 3차 년도에 자녀에 대한 미래기대가 의미 있는 추가적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유지 어머니가 자녀의 미래에 대해 성공, 좋은 가정, 명성 등 특별한 기대를 갖는 것이 양육스트레스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나, 전업유지 어머니는 정서적 가치 이외에도 자녀에 대한 미래기대가 추가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업유지 어머니는 양육관련 인지 변인들의 양육스트레스 설명력이 취업유지 어머니들에 비해 점점 낮아지지만 취업유지 어머니보다 양육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높은 인식이 요구된다. 자녀에 대한 기대는 부모역할 인식과 정적 관계가 있다(Choi, 2013; Kim, 2011; Kim, 2013)는 점에서 전업유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미래기대라는 양육관련 인지 변인의 영향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되었다.

한편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녀미래기대를 여섯 개 문항의 평균점수로 확인하였으나 각각의 문항은 자녀의 성공, 행복한 가정 등 서로 다른 기대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Nam(2005)의 지적처럼 자녀에 대한 기대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같은 과거 경험이나 현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취업유지 어머니와 전업유지 어머니의 자녀미래기대의 내용은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미칠 영향이 유사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녀미래기대 측정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측정 신뢰도의 확보가 요구되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미래기대 검사 도구는 총점보다는 문항별 점수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검사의 내적합치도 계수도 비교적 낮게 나타나,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미래기대를 기대의 내용 혹은 항목별로 구분하여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예측을 위해 투입된 독립변인 중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취업유지 어머니와 전업유지 어머니 모두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관련 지식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며(Song & Kim, 2008),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Kim & Song, 2007; Min & Moon, 2013)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그러나 초기 영아기 이후의 양육과정에서는

양육지식의 습득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Choi 등(2013)의 보고와는 일관된 결과였다. 이러한 차이는 양육지식을 확인하는 검사 도구에서의 차이 등과 관련될 수 있으며, 단순히 양육지식이 많고 적고의 문제 보다는 어떠한 양육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갖고 있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채택한 양육지식 검사가 양육관련 지식 중 아동의 ‘발달원리’에 관한 내용만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적 낮은 신뢰도 계수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설명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선정된 양육관련 인지 변인들에 의한 양육스트레스 설명변량의 절대 크기는 조사년도와 어머니 집단에 관계없이 4%~17% 수준으로 나타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되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부갈등을 포함한 가족관계, 자녀의 기질이나 부정적 정서와 같은 자녀 개인변인, 혹은 맥락 환경 등의 다양한 변인과 관련되어 있다(H. Lee, 2013).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른 독립변인들은 어머니 속성 중 양육관련 인지 변인들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전체 설명변량이 낮게 나타난 것은 양육스트레스 관련 요인을 다면적으로 고려하지 않아서 기인된 결과일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데이터의 사례수가 비교적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양육관련 인지 변인의 양육스트레스 설명력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점은 앞서 설명한 다른 변인들의 양육스트레스 설명력이 여전히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첫 자녀 출산 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속출산 여부 등의 변인을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자녀 출산 후 3년간 취업 혹은 전업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어머니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부모기로의 전환 후 나타나는 양육스트레스 변화와 관련 변인 간 관계에서 어머니 취업의 누적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의 논의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임신육아교실, 가정양육지원사업, 영유아기 부모의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의 계획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전업모와 취업모는 양육스트레스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자녀의 성장에 따라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관련 변인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이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기로의 전환을 앞둔 임신부 또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 가치와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은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1-412.
- Ahn, J. Y. (2000).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Bek, Y-S. (2007). The effect stress and guilt of mothers in raising children have in their attitude of raisi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 S. Y., Lee, J. H., Chun, H. Y., Shim, M. K., Hwang, H. J., & Choi, H. Y. (2014). *Infant and toddler development*. Seoul: Sinjeong.
- Cho, Y-J. (2013). Influences of mother's expectation about children's future and parenting stress on awareness level of parent's ro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Choe, H. S. (2002). Effects of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stress, and child's temperament of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Choe, H. S., & Chung, O. B. (2000). The development of an inventory for measuring the parenting self-efficacy of Korean moth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3), 1-16.
- Choi, H., Yeon, E. M., Kwon, S. J., & Hong, Y. J. (2013). A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perception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 care, value of children,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17(2), 21-45.
- Chung, H-E., & Chin, M-J. (2008). The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by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1(1), 147-164.
- Chung, M., Hong, S., & Park, S. (2013).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additional childbirths of the families with one child.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3(1), 259-277.
- Collins, M. E. (1992). Parent's cognition and development changes in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43, 79-93.
- Crinic, K., & Acevedo, M. (1995).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2nd ed., pp. 277-297).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rinic, K.,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1042-1050.
- Crinic, K., & Low, C. (2002).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pp. 243-267). Hillsdale, NJ: Erlbaum.
- Eom, J-W. (2011). Predictable variables for parenting stress in Korean mothers of infants: Focus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fant's characteristics,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marital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syst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Forgays, D. K., Ottaway, S. A., Guarino, A., & D'Alessio, M. (2001). Parenting stress in employed and at-home mothers in Italy.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 22(4), 327-351.
- Goodnow,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

- 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Gross, D., Conrad, B., Fogg, L., & Wothke, W. (1994). A longitudinal model of maternal self-efficacy, depression, and difficult temperament during toddlerhood.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7, 207-215.
- Hashimi, H. A., Khurshid, L., & Hassan, I. (2007). Maternal adjustment, stress and depression among working and nonworking women. *Internet Journal Med Update*, 2(1), 1-11.
- Hunt, J. M., & Paraskevopoulos, J. (1980). Children's psychological development as a function of the inaccuracy of their mothers' knowledge of their abilitie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6(2), 285-298.
- Kim, E-J., & Seo, Y-H. (2012). A study on child rearing experience of stay-at-home mom with infant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7(1), 93-114.
- Kim, J. K. (2012). The home environment exploration according to the employment of infancy mother. *The Third Korean Children Panel Investigation Conference*, Seoul, Korea, 25-42.
- Kim, J. M., Moon, S. M., Kim, Y. K., & Ahn, S. H. (2013).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and mother-caregiver relationship on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5), 79-98.
- Kim, K. H., & Kang, K. K. (1997).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5(5), 141-150.
- Kim, M-J. (2011).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beliefs and expectation on parenting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3), 155-170.
- Kim, M-J. (2013).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beliefs, expectations and parenting intelligence between fathers and mother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8(3), 311-332.
- Kim, S. Y.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al beliefs and their child-rear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2), 313-324.
- Kim, Y. E., Cho, B. H., & Jung, M. J. (2007). Prevalence study of mothers' perception on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Comparison between years 2002 and 2007.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3(2), 69-88.
- Kim, Y., & Song, Y. (2007). The relation between a mother's parenting knowledge about infants and parental stres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4), 475-493.
-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2011). Preliminary analysis report of Korean Children Panel 2010. Research Report 2011-26, Retrieved from http://panel.kicce.re.kr/kor/inquiry/03.jsp?mode=view&idx=6952&startPage=0&listNo=8&code=panelreport&search_item=&search_order=&order_list=10&list_scale=10&view_level=0
- Kwon, M. K. (2011).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7(2), 19-41.
- Lee, H. S.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 mother's attitudes in child rearing and young children's maladjustment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8(3), 337-354.
- Lee, H. J. (2013). A longitudinal study on the maternal parenting stress: The use of a latent growth model. *The Fo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Children*, Seoul, Korea, 251-271.
- Lee, K. (2012). The use of child of care service and maternal variables. *The Third Korean Children Panel Investigation Conference*, Seoul, Korea, 137-159.
- Lee, M. R. (2013).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with the context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4), 143-162.
- Lee, S., Jeong, Y., Kim, H., Choi, E., Park, S., & Cho, N. (2005). *National survey on dynamics of marriage and fertility*.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S., & Park, S. (2012). Parenting knowledge, attributions and the perceptions of parenting roles as they relate to the parenting behaviors of mothers' towards their infant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9(2), 131-149.
- Lee, S-S. (2006). A study on impact of the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6(2), 95-140.
- Lim, H-J., Choi, H-J., & Lee, D-K. (2012). How emotions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and parenting stress impact on parenting styles for working moms and homemaker mom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2(3), 225-244.
- MacPhee, D. (1984). The pediatrician as a source of information about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9(1), 87-100.
- MacPhee, D. (2002).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Survey of child care experiences & manual (2nd ed.). Unpublished manuscript, Colorado State University.
- Melson, G. F., Ladd, G. W., & Hsu, H. (1993). Maternal support network, maternal cognitions and young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4(5), 1401-1417.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2), 259-285.
- Min, H., & Moon, Y. (2013). Relationship among mother's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maternal parenting stress,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infant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2(1), 43-56.
- Moon, H. J. (2004).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11), 109-122.
- Muslow, M., Caldera, Y. M., Pusley, M., & Reifman, A. (2002).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944-956.
- Nam, J. I. (2005).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s self-actualization, mother's expectation and children's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 (2007).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5: Survey on children and the family*. Saitama, Japan: Author.
- Ok, K. H., & Chun, H. Y. (2012). Maternal parenting stress of infants from different income groups: The relative importance of father involvement, the marital relationship, and meanings of parenthood.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1), 205-221.
- Östberg, M., & Hagekull, B. (2000).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of parenting stres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4), 615-625.
- Reece, S. M., & Harkless, G. (1998). Self efficacy, stress, and parental adaptation: Applications to the care of childrearing families. *Journal of Family Nursing*, 4(2), 198-215.
- Sohn, S. M. (2012).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331-357.
- Song, Y. S., & Kim, Y. J. (2008).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knowledge on parenting self-efficacy: A comparative study between infant and early childhood mot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3), 181-203.
- Suh, J. H., & Kim, J. K. (2012). The study on the factor affecting infancy maternal parenting stres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3(1), 101-121.
- Watson, R. I., & Lindgen, H. C. (1973). *Psychology of the child*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Yang, M., & Kim, Y. (2012). A study on the level of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8(3), 229-247.
- Yoon, H. J., & Cho, B. H. (2004). Maternal knowledge of child rearing and home environment.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1(2), 59-88.
- Yoon, J-W., Hwang, R. I., & Cho, H. H. (2009).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5(4), 294-302.
- Yu, W. Y., & Lee, S. (1998). The causal relations of children's social adjustment and related variables: Focusing on the parenting stressor,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10), 65-78.

Received July 25, 2014

Revision received September 20, 2014

Accepted October 14, 2014